

 <b>대외경제정책연구원</b> <b>보도자료</b>	배포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14:30	매 수	6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3장
	담당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김경훈 부연구위원 ☎ 044-414-1221 ✉ khkim@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 ☎ 044-414-1210		

## “2019년 세계경제 3.5% 성장 전망”

### – KIEP, IMF와 11월 20일 롯데호텔에서 2019년 세계경제 전망과 개방경제에서의 신성장동력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11월 20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컨퍼런스에서는 2019년 세계경제 및 아시아 경제를 전망하고, 개방경제에서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신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이제 고점을 돌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통상분쟁의 심화,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가시화되면서 수요·생산·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2019년은 여러 대내외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19년에 세계경제가 수요·생산·고용이 선순환하는 힘이 점차 둔화되면서 올해(3.7%)보다 낮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2019년 2.3%, 유로 지역은 1.8%, 일본 0.8%로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나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미 금리인상,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배 실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로 신흥국의 통화가치 약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등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특히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교역이 둔화되면서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파블로 로페즈-머피(Pablo LOPEZ-MURPHY) IMF 아시아·태평양국 지역연구실장은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5.6%, 5.4%로 여타 지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2.8%, 내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은 대외적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분쟁 심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민간부채가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대체로 충분한 외환보유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며, 재정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방경제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에서 앤 외킹(Anne OEKING)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기업 역동성과 생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외킹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아시아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것이 아시아 장기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생산성 증가의 둔화 배경에는 생산성이 상이한 기업 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는 기업 역동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잠재성 있는 기업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규엽 KIEP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제품이나 공정 혁신을 디지털 혁신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제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카르도 모형에 기초한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이 세계무역 증가에 기여하지만, 증가된 세계무역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외에도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팀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실장, 최혜린 KIEP 부연구위원, 파블로 로페즈-머피 IMF 지역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편 KIEP는 2011년부터 해마다 IMF와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차년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제7차 공동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의 거시금융정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붙임. ‘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프로그램

/끝/

<b>붙임</b>	<b>‘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프로그램</b>
-----------	-----------------------------------

시 간	행 사 내 용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b>개 회 식</b>		
14:00~14:10 (10')	개 회 사	이재영 KIEP 원장
<b>제1세션. 2019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전망</b>		
사회: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4:10~15:00 (50')	① 2019년 KIEP 세계경제전망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②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향후 도전과 과제	LOPEZ-MURPHY, Pablo IMF 아시아·태평양국 지역연구실장
15:00~15:10 (10')	Coffee Break	
<b>제2세션. 개방경제에서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b>		
사회: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0~17:10 (120')	① 아시아 지역의 기업 역동성과 생산성	OEKING, Anne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
	②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
	토 론	안재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성과관리팀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최혜린 KIEP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LOPEZ-MURPHY, Pablo IMF 아시아·태평양국 지역연구실장

\*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사진1] '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전경사진



[사진2] 이재영 KIEP 원장 개회사



[사진3] ‘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세션1 진행



(오른쪽부터)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파블로 로페즈-머피(Pablo LOPEZ-MURPHY) IMF 아시아·태평양국 지역연구실장이 “2019년 아시아 및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제8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의 세션1을 진행하고 있다.